

사·부·대·중

여법한 스님상



주경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한 종단의 노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 있고, 예비승들도 종단의 지침을 어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법함을 가지고 다니며 필요에 따라 갈아입거나 중앙종무기관이 있는 조계사에 오면서도 복장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속가를 떠나서 입산승가를 하면 그때부터 '행자'로 불리게 된다. 사미니(계를 받을 때까지 대부분 특별한 법명도 없이 '김행자' '이행자' 등으로 불리며 6개월에서 보통 1년 정도 행자생활을 통해 스님의 기본을 갖추었다.

행자들은 빨리 '스님'이 되고 싶어하지만 지금의 행자생활은 스님의 말과 행동, 웃음의 법, 염불의식 등 겉모습을 갖추는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스님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 종단은 행자생활을 마치고 바로 스님(비구, 비구니)이 되는 것이 아니라 4년간의 예비스님(사미, 사미니)제도를 두고 있다. 95년 이후로 기본교육을 반드시 마쳐야만 정식스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예비승들의 복지도 목과 소매 끝에 밤색띠를 돌려 구별을 두었다. 이것은 군소종단이 난립하고 스님의 정형이 혼재하는 가운데 '조계종 스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노력의 하나였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기성의 스님들조차 이러

목탁소리

김주일 (취재2부 기자)

9일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여성들이 남성에게 받는 불평등한 속박에서 벗어나 여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의미로 제정된 날이다.

정부는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1월 29일 여성부를 독립적인 공식기구로 출범시켰다. 구시대적 인습인 남존여비사상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자각한 것이다. 이런 사회적 현상 때문인지 요즘 여성단체들도 어느 때보다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비구니 스님들과 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여성불자 1백여명이 모여 조직된 불교여성개발원의 창립으로 불교계도 여성들의 폭넓은 신생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불교여성개발원은 2월 10일 상임위원 워크숍을 열고 여성교육, 사찰내 아동보육 시설 설치, 불교여성강좌 개최, 불교여성학 출판물 간행 등 올해의 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교계의 여성단체들은 수적으로도 적었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별적인 영기선도 능력 향수가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대문 사람들

원장 윤정주 저서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른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제비방향이 같은 책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화엄결사 정법의 잣대 세우는 일”

인터뷰

화엄학림결사 추진위원 일귀스님

깨침과 자비의 가르침은 과연 가치관의 전도와 혼돈 속에서 스스로를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등불이 되고 있는가?

이 같은 질문에 한국불교는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음과 같은 평가에 의미를 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불교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과정의 해결 지표를 충분히 제시해 왔다고는 평가하지 않는다.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 왔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결사(結社)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체화하고, 이를 세상에 들려주려는 승가의 공동체적 몸짓이다. 한국불교는 정혜결사, 백련결사 등의 오묘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95년 시작한 화엄학림이 화엄학림결사로 전환했다. 물론 화엄학림은 그대로 유지되, 새로운 시도를 위한 결사를 별도로 운영한다. 8일 화엄학림결사 근본도량인 화림원(華林院)에서 만난 일귀스님(화엄학림 학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근본’을 되찾는 것이 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왜 결사인가.
△취지문에 잘 나타나 있다. 못 증생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 출발했던 화엄학림이 불과 7년만에 그 명맥의 유지를 근심하게 되었다.

이런 정황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학과 계율을 경시하는 근래의 수행관과 절집의 정서를 들 수 있다. 이는 교조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없이도 올바른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과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단의 풍토, 그리고 경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종단정치와 철저히 무관

계다가 학림에 대한 미미한 재정 지원과 열악한 환경, 특히 교육역량의 한계와 교수방식의 구태의연함을 극복하기 위한 현대적 사찰일에 동원하는 '보조자'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일이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의 의식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깨우침을 얻는다면 훨씬 살기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밝고 청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여성불자들의 의식개혁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그런 질문은 우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에 두지 않고 방편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사욕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본을 세운다면 불교 아닌 것이 없다. 근본을 놓치지 않으면 방편도 진리이다. 근본 가르침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비불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근본이라는 잣대를 깎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결사의 의미를 하나 더 덧붙인다면 정법의 잣대를 짚아 세우는 일이다. 골짜기마다 선방이 있듯이, 이런 결사 분위기가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닷물은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짜지 않는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근본은 무엇인가.

▲무아와 연기와 중도, 지혜와 자비이다. 부처님은 모든 언행을 통해 법을 보여 주고 있다. 무아 연기 중도의 세계관에 철

3%의 소금이 바닷물 오염막듯 화엄경학 탐구와 가르침 체화로 ‘불교 근본 세우기’

저했기 때문이다.

-90년대 초반 선우도량과 실천승가회가 종단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화엄결사가 이 같은 흐름을 이어받는다고 볼 수 있는가.

▲어느 집단이건 리더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래서 맑은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나 화엄결사는 종단, 특히 종단의 정치와는 철저히 무관하다. 불교와 우리 사회에 맑은 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을 찾아내 함께 풀어가자는 차원이다. 한 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성공할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살다 갈 것이다.



◁화엄학림결사 추진위원 중의 한 사람인 일귀스님. 일귀스님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근본’을 되찾는 것이 화엄결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화두를 참구하는 참선수행만이 수행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경학을 연구하든지, 선을 하든지 부처님의 근본 뜻을 살려내야 한다. 교와 선과 실천이 앞섬도 없이 뒤섬도 없이 전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어떤 것이든지 괜찮다. 요즘의 한국불교를 빗대어 무사(無師) 시대라고 하는데, 편협된 사고와 가르침을 대를 물고 있는 풍토에 대한 비판이다. 승가에는 물론 현대인의 생활에 삼학의 조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삼학의 조화를 어떻게 사회에 보여준다는 것인가.

▲계는 원칙과 질서를 갖는 것을 말한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만, 개인과 사회에 원칙과 질서는 반드시 서야 한다. 정은 철저히 자기를 바라보고 반성하지는 것이다. 내가, 우리 사회가 어

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지 않는가. 해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계정에 삼학이 조화되어 세상을 바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이 시대 승려들의 의무이다.

비구니스님도 입방가능

-왜 화엄인가.

▲현대사회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해야 한다. 화엄사상은 새로운 세계관의 원천이다. 이곳에서는 2년 동안 화엄학 개론, 종관개론, 유식학 개론 등을 공부한 후 화엄경을 파고든다. 현재 7명이 결사 대중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두 학림을 마쳤거나, 10년 이상의 선원안거, 2년 이상 강사의 경력을 가진 스님들이다. 실상사의 주지스님을 비롯 모든 사중스님들이 청강승으로 참여한다.



◁화엄학림결사의 근본도량인 화림원. 훗날 불교역사는 이곳을 새 불교의 발원지로 기록할 것이다.

한편 화엄학림은 7기 학인을 추가 모집한다. 특히 이번에는 실상사 신내입자인 약수암을 비구니숙소로 확보함에 따라 비구니 스님의 입방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일귀스님은 “비구만 달라져서는 안 된다. 비구와 비구니가 머리를 맞대면서 승가의 화풍을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4월 3일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한다. 063-636-3860, 3861 화엄학림.

남원=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정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x14x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모델 A : ₩3,800,000
· 모델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도굴시공
○ 도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제 10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신청 받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매년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포상하고 있사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with columns: 구 분, 대 상, 인원, 상 금. Categories include: 1. 시상 부문, 2. 구비 서류, 3. 제출처, 4. 신청 마감, 5. 심사 및 발표, 6. 시상일.

1. 신청서 또는 추천서 (지정양식) 1통
2. 이력서 (명함판 사진 3장) 1통
3. 공적서 및 증빙자료 (최근 2년내 실적자료) 1통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기획실
☎ 031)980-7719~20 (우편번호 : 415-070)
4. 신청 마감 2001년 6월 30일
5. 심사 및 발표 본 재단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개별통지 및 불교관계 신문 발표
6. 시상일 2001년 9월 24일 월요일

* 기탁 자재인 서명은 본 재단 사무국 (02)586-652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3월 일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